

“어르신들 ‘배움의 한’ 풀어드려요”

보성군 별교읍에 있는 홍지중·고등학교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화제다.

특히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2년 동안 정규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중·고등학교로 입학금 등 무료로 교육을 제공해 해마다 300여명의 만학도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13회 졸업생 1,867명을 배출했으며, 재학생은 427명으로 20%가 청소년, 80%가 만학도로 구성됐다.

홍지재단을 이끌고 있는 김숙희 이사장은 “홍지중·고등학교는 1960~70년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과 배움의 학령기를 놓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배움에 대한 실을 풀어드리기 위해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기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보성 홍지중·고, 해마다 만학도 300여명 배출 교육비 전액 무료...“운영예산 부족 지원 절실”

학생과 지역민들의 요구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프로그램에는 영어회화, 한국화, 시창작, 오카리나 연주 등이 있고 자격증 과정은 한자 능력검정반, 근본치료 운동관리사, 난타, 한국사 능력검정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홍지중·고 학생들은 숙명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등 4년제 대학을 비롯해 2~3년제 사회복지과, 건축과, 뷰티과, 토목과 등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전남권에서는 목포제일정보중·고와 홍지중·고 등 2곳이 학력 인정학교로 선정돼 있다.

홍지중·고는 동부권을 아우르고 있어 보성을 비롯한 곡성, 강진, 장흥, 고흥 등 많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주·야간반 운영, 1년 3학기제 시행, 스쿨버스 운영 등으로 재학생들의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재진 홍지중·고 교장은 “배움에 대한 갈망 해소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과 나눔, 더 큰 행복’을 위한 교육 목표 아래 학교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학교 운영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운 점도 많다”며 “지원이 절실해 전남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



홍지중·고등학교 만학도들이 난타수업을 듣고 있다.

/이주연 기자

을 뒷받침하고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활성화 위해 앞으로도 홍지중·고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지중·고는 중학교 160명, 고

등학교 160명 2년제 과정으로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접수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지원 자격은 초·중학교 졸업 및 동등학력소지자로 만 16세 이상이며 입학금 등은 전액 무료다. /이주연 기자

순천 ‘발효아카데미’ 교육

9일부터 6주간 누구나 참여

순천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2020 발효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한다.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발효식품 분야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식품발효미생물 기초이론과 발효차 제조 실습을 병행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발효아카데미는 승주읍에 있는 미생물 친환경농업교육관과 서면에 있는 순천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오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4시간씩 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발효차와 발효음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효식품산업 방향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식품제조업 창업에 필요한 식품위생법과 인허가에 필요한 기본 규정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식품제조업 관계자, 예비창업자, 농업인, 일반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강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광양 안전한 먹거리 보장

선순환 ‘푸드플랜’ 수립

광양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생산·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먹거리 선순환 ‘광양시 푸드플랜’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푸드플랜이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중소농가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환경보조 정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 1월 농식품부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에 응모해 총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9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최종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푸드플랜의 주요 과업으로는 ▲광양시의 먹거리 현황과 실태조사 ▲푸드플랜의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투자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공급확산 교육 및 포럼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공급식의 확대와 잉여 농산물의 관의 소비 촉진 등 효율적인 먹거리 순환 체계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 8월까지 과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광양 ‘매화랑 매실이랑’·‘매천 황현 생가’

전남도 11월 추천 관광지 선정

광양시가 ‘매화랑 매실이랑’ 이다채로운 남도밤산을 테마로 하는 전남도 11월 추천관광지에 ‘매천 황현 생가’와 함께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선국사마을에 있는 ‘매화랑 매실이랑’은 백운산이 키운 고사리, 원주리 등 다채로운 산나물들과 매실장아찌·고추장, 토마토절임 등의 발효음식으로 건강한 밤산을 차려낸다.

또한 매실돈가스, 매실냉면국수 등 광양대표특산물인 매실을 활용한 이색별미도 맛볼 수 있어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식탁을 찾는 인스타그램러라면 반드시 찾아야 할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다.

특히 매실을 활용한 떡·김치 만들기, 고로시 수액과 진달래꽃을 넣은 전통주 빚기 등 향토음식 체험까지 가능해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층과 가족단위 여행객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백운산이 거느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관, 들레길 등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는 텀도 누릴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이번에 11월 추천 관광지에 함께 오른 ‘매천 황현 생가’는 1910년 일제의 국권 침탈에 지식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한 매천 황현이 태어난 곳으로 근처 매천역 사당원과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다.

매천 황현은 예리한 통찰력과 높은 역사적 안목을 지닌 역사가이자 2,500여수의 시를 남긴 시인으로 매천야곡, 오하기문, 시·문 등의 저술과 문방구류 및 생활 유물 등 총 8건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시대를 초월해 추앙받고 있다.

광양시 이화엽 관광과장은 “깊어가는 가을 ‘매화랑 매실이랑’, ‘매천 황현 생가’ 등을 여행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을 두루 살피우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며 “정중한 백운산 아래서 건강한 밤산과 울긋불긋한 역사정신을 함께 쟁겨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여행전문작가, 관광관련학과 교수 등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계절별, 테마별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고흥군이 최근 고흥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꿈기움 드림오케스트라 수업을 진행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 ‘꿈기움 드림오케스트라’ 신바람 연주

클래식 음악교육 저소득층 지원 4년째 추진

고흥군이 최근 고흥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꿈기움 드림오케스트라 수업을 진행했다.

꿈기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바이올린, 첼로 등 클래식 음악교육과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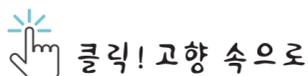
군은 4년째 연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남문화예술협회에 위탁해 전문 강사 5명이 40명의 학생을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합주로 나눠 지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힘든 시기에는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업 전 발열 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악기를 제공해 주고 연주법을 가르쳐줘 감사하다”며 “멋진 연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여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실시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 2,000명에게 최근 아침밥 대체식품인 소고기야채죽을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학부모들은 “맛별이 부부라서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챙겨줄 여유가 부족했는데, 센터에서 준 소고기야채죽으로 아침 식사를 챙겨줄 수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영양만점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간단하게나마 아이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소방서, 승강기 갑힘사고 대응 훈련

순천소방서 119구조대가 지난 3일 승강기 갑힘사고 발생 때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 및 구조기법을 익히기 위한 전문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구조대원 22명은 승강기안전공단 전문강사와 함께 승강기 구조 및 작동원리, 기중별 제동방법 및 수동개폐 요령, 승강기 갑힘 발생 시 비상복구 및 구출요령, 구조 장비를

활용한 훈련 등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훈련 과정을 수료했다.

장동선 119구조대장은 “정전 및 고장으로 건물 내 승강기가 정지한 경우 강제로 개방하지 말고 인터폰을 통해 관리실에 알리거나 119에 신고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대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광양공무원노조,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지부가 최근 광양읍에 사는 홀몸 어르신 가구의 대청소를 실시하고 전기압력밥솥과 이불세트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저장강박증세와 경증치매로 한 옷과 음식물 등이 곳곳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한 가구로 광양시노인맞춤돌봄센터의 추천을 받아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강삼연 지부장은 “말끔해진 환경에서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노인들 삶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무원노조가 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공무원노조는 매월 1가구씩 홀몸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